



## 국어 자료로 본 『삼국유사』 연구

A study of SAMKUKYUSA about Korean data

---

저자 (Authors)	정호완 Jeong Ho-Wan
출처 (Source)	<a href="#">인문과학연구 20</a> , 1999.11, 95-114(20 pages) <a href="#">Journal of the humanities 20</a> , 1999.11, 95-114(20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대구대학교 인문교양교육연구소</a> Liberal Art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32412">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32412</a>
APA Style	정호완 (1999). 국어 자료로 본 『삼국유사』 연구. 인문과학연구, 20, 95-11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6 11:0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국어 자료로 본 『삼국유사』 연구

정 호 완\*

## 〈목 차〉

I. 머리 말	1. 명칭어류 기술의 표현
II. 향가의 국어 자료적 성격	2. 명칭류 언어 자료와 고대 국어
1. 품사별 향가 어휘의 갈래	3. 문장의 갈래
2. 문법형태류의 분포	
III. 명칭어와 문장류의 갈래	IV. 맺는 말

## I. 머리 말

국어자료로서 『삼국유사』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자료집으로서 『삼국유사』를 색인 형식으로 정리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삼국유사색인』에서 전체적인 대강이 드러난 바 있다. 그렇다고 하여 삼국유사색인에 드러난 자료가 모두 국어자료는 아니다. 이들 가운데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연구에서 향가자료를 비롯하여 삼국의 언어를 포괄하는 지명 인명이나 벼슬이름 같은 명칭류 자료에서 우리말을 가려 내는 작업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sup>1)</sup>

모든 기록물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편찬 혹은 기술하는 사람의 언어의 식이 반영되게 마련이다.<sup>2)</sup> 특히 『삼국유사』에는 경산지방의 방언을 토대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1)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한 자료를 모본으로 하여 삼국유사에 드러난 모든 자료를 망라하여 유해식으로 엮은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삼국유사색인, 동아일보, 1980.

2) 필자는 이를 일러 언어의 문화투영이라고 한다. 언어는 문화정보의 결정적인 상징으로 보려는 문화기호론과 같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송훈섭, 문화기호

로 한 경북방언으로 향가를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거의 같은 시대에 저술된 『삼국사기』 또한 경주태생인 김부식에 의하여 찬술되었으니 사관과 구성 내용은 다르다 하지만 표기된 언어적 기층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어자료로서 유사의 개관은 다분히 사기의 표기와 의 관계를 고려 함으로써 자료의 제약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자료 마찬가지로 어휘론적인 자료의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삼국사기』는 어휘자료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유일하게도 삼국시대의 자료로서 문장형태의 경우는 『삼국유사』뿐이다. 모든 어휘란 결국 하나의 문장 더 나아가서 하나의 통일된 글감을 이름으로써 표현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로 볼 때, 거의 모든 논의들이 지명이나 인명 그리고 관명을 중심으로 한 어휘 연구와 향가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읽기와 풀이에 경도되었던 게 연구의 큰 흐름이었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sup>3)</sup> 본 논의에서 어휘자료와 문법자료라는 언어체계의 재구를 위한 관점에서 자료를 개관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 향가 자료에 드러나는 품사의 갈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도록 한다. 아울러 문법형태소도 함께 추출함으로써 이어지는 후속연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먼저 어휘 자료로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명과 인명 그리고 호칭류에 대한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 보도록 한다.

---

학, 민음사, 1997. pp. 14-17.

3) 정열모, 향가연구, 사회과학원, 1965.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72.

서재극,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79.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신석환, 향가 문법형태소의 분석적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6.

유창균, 향가비해, 형실출판사, 1994.

최남희, 고려향가의 차자표기법연구,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6.

1. 삼국유사 소전의 자료 분포

1) 어휘자료

(1) 지명류

州 61 郡53 縣32 府12 部17 村45 邑里11 京/都25 城49 鎮1 伐野7  
 坪4 驛3 谷13 洞8 忽2 //岬5 山嶽峰33 嶺11 峴12 //海9 江河川水46  
 溪1 浦津灣16 池16 井11 邊汀3 //帖4 石岩14 窟穴12 靈地12 臺, 丘陵  
 10 藪1 林13<sup>4)</sup>

(2) 국명류 : 235<sup>5)</sup>

(3) 왕칭류

(왕칭호류) 居西干3 居瑟那1 尼師今1 尼叱今14 齒叱今1 麻立干6 麻袖  
 干1 次次雄1 //시호 40//왕족24//공주18//왕자51 왕336 왕비128 //장  
 군87<sup>6)</sup>

(4) 인종명 : 26//부족명13//기타인명122

(5) 승려관련 : 승니262 거사9

(6) 화랑류 : 43

(7) 시가류 : 향가14

2) 문법자료

(1) 형태류: 향가14

(2) 문장류: 향가14

(3) 글감류: 향가14

3) 계통별 언어의 분포

(1) 한국어

(2) 중국어

(3) 범어(다라니 등)<sup>7)</sup>

4) 천소영, 고대국어어휘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5) 이병선, 한국 고대 국명 지명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6) 이병선, 같은 책, 1988.

## Ⅱ. 향가의 국어 자료적 성격

향가는 한자를 빌어다가 적은 우리의 입말 곧 음성언어이다. 음운의 수나 음운결합의 구조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당시 한자의 소리와 우리말 소리가 일대 일로 대응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비록 14 수에 이르는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바다 가운데 빛나는 보물과도 같이 소중한 고대국어의 귀중한 자료이다.

일연이나 김부식의 지역방언을 고려하여 경산 출신의 서재극(1979)의 향가연구와 정열모(1965), 천소영(1989)의 삼국사기연구를 통한 어휘를 바탕으로 하여 국어자료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품사별 갈래의 열개를 엮어 보려고 한다. 먼저 서재극(1979)의 향가 어석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어자료를 품사별로 문법형태소별로 갈라 보기로 한다.<sup>8)</sup>

향가를 바탕으로 하여 유해식으로 어휘와 문법 형태소를 가려보고자 한다. 이 때 당시의 음운체계로 미루어 표기상의 음소적인 제약을 고려하기로 한다. 예를 들자면 ① 파찰음소나 유기음 혹은 된소리 ② 어두복자음 ③ 모음체계와 같은 음소의 제약을 들 수 있다. 당시에는 파찰음소가 확고한 음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고 본다<sup>9)</sup>. 따라서 파찰음으로 적힌 어휘들은 마찰음소로 적음을 기본으로 하고 시기적으로 거리는 있으나 중세어 자료나 경산의 방언자료를 원용하여 당시 어휘의 가능성을 재구성하기로 한다.<sup>10)</sup>

### 1. 품사별 향가 어휘의 갈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낱말과 문장해석에 골몰한 나머지 문장속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른 낱말의 기능별 품사의 갈래 구분이 없었다.

7) 강길운,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새문사, 1990.

8) 유창균,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1994

9) 이기문,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1998.

김동소, 한국어변천사, 형설출판사, 1998.

10) 최남희, 고려향가의 차자표기법 연구, 건국대(박논), 1986

이제 여기서는 시론의 작업이기는 하지만 서재극(1979)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기로 한다.<sup>11)</sup>

먼저 체언류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체언류

- ① 봄(去隱春<모죽지랑>)시름(憂音<모죽지랑>)아쉽(阿冬音<모죽지랑>)-아득함(방언)아득함(석봉천자)阿冬音奈縣一云休陰(삼국사기)/아쉽(정열모)죽(兒史<모죽지랑>)-얼굴(방언)죽(자회상24)마삼(心未<모죽지랑>)-맘/마암(방언)ㅁ슴, ㅁ슴(용가18)다붓(蓬次叱<모죽지랑>)-다복쑥(방언)다붓과사매(두시초8-67)굴형(巷中<모죽지랑>)-골, 골목(방언)굴형에(남명하60)밤(宿尸夜音)-밤/밤(자회상1)(慕竹旨郎歌)
- ② 덜뵈, 디뵈(紫布)-紫曰質背(계림유사)자주, 자지(방언)즈디(유합상5)들배-덜배>달외>달래(花園-月背) 바오(岩乎)방우, 방구(방언) 바싹방(巖房)(용가1-46) 곁(邊希)곁, 갓(방언) 곁터로 잡고(소언5-70) 손(手)손(방언)손爲手(해례용자)쇼(암쇼牡牛)암소(방언)암쇼(역어유해 하30)나(呑盼)나(방언) 날와如來와(법화4-140) 꽃(花盼)꽃, 곳(방언)곳곳고(插花)(박통사 초 상5)(獻花歌)
- ③ 아비(父也)아비부(父)(자회상19) 아해(阿孩古)아, 아히(방언)아히(兒)(자회상32) 구릿대(窟理叱大盼)저주, 탄식(방언)굴다(가스물구러)(嘘其心)(구급간1:13) 물(物生)뭇생(방언)뭇셔(庶)(우하방16) 이(此盼)이(방언)此논이라(훈언) 짜(此地盼)땅(방언)짜爲地(훈음해례합자) 나라(國惡支)나라(방언)나라훈五道애(법화2:183) 어드리(於冬是)어드릴(합남)어드러(방언)어드리아니니르료(석상13:46)(安民歌)
- ④ 달(月羅理)달(방언)들爲月(훈음해례용자) 구름(雲音)구름(방언)구름운(雲)(훈몽자회초 상:1) 새(沙是)억새(방언)菴은새지비라(법화2:244) 나리(川理叱)내(방언)正月나릿뜨른(동동) 작뵈(積惡希)자갈밭(방언)작별적(積)(왜어유해상8) 갓(際叱)갓(방언)갓업스며(금강서5) 잣(栢史叱)잣(방언) 잣松子(물보목과) 갓(枝次)가지, 가쟁이(방언) 즐겻가재연

11) 서재극, 같은 책, 1979 참조

- 즈니(용가7) 서리(雪是)서리(방언)서리爲霜(해례용자) (讚耆婆郎歌)
- ⑤ 사리(살)(寢矣)자리(방언)딛지증과삿글가져다가(노걸대언해상:23)갈의(脚烏伊)가랭이(방언)가르리 네히로세라(처용가)너(四是良羅)너(방언)방기논 너모난 그르시라(능엄2:42) 두블(二勝隱)두얼, 둘(방언)둘흔수미산을(월석1:17)누히(誰支下焉古)누구, 뉘기(안동)눌더브르시려뇨(월인곡52)아래(本矣)본대(방언)아래브터(월인곡109)(處容歌)
- ⑥ 남(他)남, 녀(방언)느민뜰다르거늘(他則意異)(용가24)마통(薯童)마爲薯蕷(훈음용자례) (薯童謠)
- ⑦ 무릅(膝盼)무릎(방언)브를무릅스고(신속삼강효3:7)두블(二尸)두얼, 둘(방언)二曰途孛(계림유사) 손바담(掌音)손바닥(방언)手掌(한청문감147d)즈믄(千隱)천(방언)즈믄천(千(자호하 34) 눈(目盼)눈:, 눈(방언)눈목(目)(자회상25) 흐든(一等下叱)한나(방언)弟子흐나홀주어시든(석상6:22) (禱千手觀音歌)
- ⑧ 무리(徒良)무리(방언)흐무리가마괴울고(삼역총해8:14) (風謠)
- ⑨ 적(伊底亦)이자아, 인지, 인자아, 이적(방언)저믄저그란(석상6:11) 사롬(人)사람, 사롬(제주)/몸(此身)이몸(방언)몸으로ㄱ리오더니(삼강열25)다덤(贅音)-다덤두되(속삼강 효자도)다짐(방언) (願往生歌)
- ⑩ 오늘(今日)오늘(방언)어제와오늘왜다하늬브롬부눅다(두초16:60) 꽃(花良고사)끝아(방언)꽃 것거算가지노코(송강가사) 너(汝隱)넌, 넌(방언)이제너를노하보내면(월석8:98) 마삼(心音矣ㅁ스미)맘으(방언)ㅁ스ㅁ로간사흐야되희며(계초심학인문4) 이(此矣이익)여어, 여계(방언)그法이이에나오리로소이다(월석2:49) (兜率歌)
- ⑪ 죽사리길(生死路隱)죽사리길은)죽사리길(방언)노모익죽사리괴별이나듣고(계축일기)ㅁ술(秋察ㅁ술)가실, 갈(방언)너르메길어ㅁ술히다結實히와(칠대만법3) 바람(風未)바람(방언)朔風은北녘브롬이라(금삼4:18) 님(葉如)넙다이)잎, 이파리(방언)넙니피서라나고(월석8:12) 갓(枝良가사)가쟁이에, 가자아(방언)증갓가재언즈니(용가7) 곧(處)곳, 곧(방언)處는고디라(석상13:12) 더(彼矣더익) 말(辭叱都말도)말또(방언)(祭亡妹歌)
- ⑫ 네누리(舊理)잇날, 잇적(방언)네닛글아나라도(용가86) (物叱)물깃(방언)

물궂덩((汀)(유합상6) 샛(城叱盼良)재,성(방언)잣성(城)(자희중8) 여  
 릿(倭理叱單置) 모(邊也)모팅이(방언)모것거돌며(금삼2:21) 오름(岳  
 岫)오름(방언)오름(제주)우희오르락 아래느리락호야(석상11:13) 돌(月  
 置돌도)달도(방언) 버리(星利)빌,벌(방언)새버리나지도드니(용가101)  
 벌물(友物)벗의 무리,벗들(방언)벗삼고(야운자경서) 빛자락(擘叱只)빛  
 자리(방언) 바(波衣)바,터(방언)(擘星歌)

- ⑬ 물(物叱)물,물색(방언) 가슬(秋察尸)가실(방언)낫(面)낫(방언)菩薩느  
 촌金色이오(월석8:35) 달(冬衣也)줄,돌(방언)긋잇는돌아니(금삼2:2) 못  
 (淵之叱)呪호야호모술(석상6:31) 금(阿叱沙)물,언덕,강지슌(방언)씀업  
 스야미(법화2:15) 누리(世理都)세상,시상(방언) 닷(理因)탓(방언)이다  
 스로이제와또싱각호야(석상9:16) (怨歌)
- ⑭ 물(物叱)물,물색(방언) 가슬(秋察尸)가실(방언) 낫(面)낫(방언)菩薩느  
 촌金色이오(월석8:35) 달(冬衣也)줄,돌(방언)긋잇는돌아니(금삼2:2)  
 못(淵之叱)呪 호야호모술(석상6:31) 금(阿叱沙)물,언덕,강지슌(방언)  
 슘업스야미(법화2:15) 누리(世理都)세상,시상(방언) 닷(理因)탓(방언)  
 이다스로이제와또싱각호야(석 상9:16)(遇賊歌)

2) 용언류

- ① 검잡다(執音乎-거몬)검잡은,검권(방언)석슬치자브시니 노하다(放教遣-  
 노히시견)놓게하시거니와(방언)어느이다노코시라(정읍사) 아니(不喻)양  
 이,아니, 안(방언)붓 그리다(慚盼伊賜等-붓호리시든)부끄러시니붓그려  
 (석상11:43) 꺾다(折叱可-것가)꺾어,꺾아(방언)다것가滅호도다(월석  
 18:56) 받다(獻乎理音如-받즈보립다)바칩시더,바치리다(방언)풍류반즈  
 보며(월석8:62) (獻花歌)
- ② 디니히고다(持以支知古如)지니지리다,지니지쿠다(방언)듣즈와디뇨더(법  
 화3:25) 하다(太平恨音叱如흐싸) 좌하다(噉惡支)묵개,묵도록(방언)흐  
 번반좌호시든(내훈1:41) 돛다(治良羅다술아라愛尸知古如드술디고다)다  
 시리거라(방언)- 버리다(捨遣只 버리격)바리고(방언)내것버려恩惠주미  
 (석상13:39) 내히다(生以支所音내히삼)내킌,내고있는(방언)내힐사르미

(태산집요 24) 어리흐다(狂尸恨얼한)어리하다(방언)愚논얼씨라(훈언)  
(安民歌)

- ③ 나다(露-나)나(아)(방언)나볼간(曉邪隱) 히다(白-흰)흰(방언)흰구루미  
히오피히프른(雲白山靑)(두해11:11) 좃다(逐于-조초)좃아,따라(방언)  
중적이좃거늘(衆賊薄之)(용가36) 떠가다(浮去-)떠가-(방언)떠갈표  
(漂)(유합하54) 숨다(隱安支下-숨았구나)숨았구나(방언)수물은(隱)(유  
합하62) 발다(八陵隱-바론)걸한,걸한(방언)게을어비를 바느니(懶旁舟  
楫)(두해초18:3)시다(史數邪-시슈라)잇으시도다(경산)씻다(제주)(讚耆  
婆郎歌)
- ④ 밝다(東京明期-볼기) 새다(夜入伊-새도록) 노닐다(遊行如可-노닐다가)  
노다가(방언)노니논짜히라(석보6:24) 들다(入良沙)드라사(방언)지비드  
러늘(入其幕)(번소9:25)보다(見昆-보곤)보건대(방언)귀하사르문보미어  
렵도다(박통사번역 상:37) 앓다(奪叱良乙-아살)아슨 것,앗았음(방언)  
반드기모딜오았는吏로히여(두해초22:49) 엇다하리고(何如爲理古)어째,  
우째(방언)(處容歌)
- ⑤ 알안겨가다(卯乙抱遣去如)알안았다(방언),알안아졌다(안동)碧派江流에  
돌안고아너 헛시니(가곡37)\*北燕朝鮮冽水之間謂伏鷄曰抱(양자방언) 알  
안다/알품다(薯童謠)
- ⑥ 고소다(古召旆)꽃꽃이하며부터상흐순바손고초샤(월석1:52) 모흐다(毛  
乎支內良모히느아)모와,모다(방언)두루피화열열드비니(월석2:14)못드  
라왔노라(노걸대언하3) 빌다(祈以支白屋尸비히술불)糧食빈대(석상  
6:14) 두다(置內乎多두느오다)두닝이다(안동)길 2 軍馬두시고(路畔留  
兵)(용가58) 짜히다(除惡支)빼시이소, 빼시(의성)두눈을짜히고(오륜  
3:63) 멀다(萬隱)먼(방언)어디머러威不及히리이고(용가 47) 그스다  
(隱賜以그시) 몰리(방언)그스기고온양흐야괴음을取흐느니(구감하51)  
긋다(古只內乎叱等邪고지느오쓰라)꼬지고있드라(방언)머리에긋디아니호  
고(두해8:66) 기디다(遣知賜尸等焉기디히실든)기치실것이면(방언)기틸  
유(遣)유합하13) 바리다(放冬矣브리드리)바림애(방언)金刀을브리시니  
(용가54)쁘다(用屋尸쓰을)썰,씨는(안동)다시쓰샤누역으로오슬삼아(용

- 가77) 심구다(根古심구소서(방언)손소桃李를심구니((手種桃李)(두해 10:7) (禱千手觀音歌)
- ⑦ 오다(來如)오도다(방언)소리하고도라오거늘(석상6:32)설브다(哀反설븐) 섹음,시렴(방언)섹고애받븐쁘디여(월곡143) 하다(多羅)많아라, 많도다(방언) 닷그다(修叱如良닷그라)딱구로—딱그라, 딱을라고(방언)禪을닷꺾나(능엄9:15)(風謠)
- ⑧ 슷다(念丁)시쳐, 거쳐(방언) 뉘웃다(惱叱뉘우즐)뉘으쳐책호몬(법화4:36) 오라다(古謫오람)오램,오람(방언) 하다(多可支함즈키)항금,함쪽(방언) 살브다(白遭賜立)삼으시이소, 삼으게시오(전라도)聖人神力을어느다살바리(용가87) 깊다(深史隱기프신)지프신(방언)聖化 | 기프샤(용가9) 우러르다(仰地우월히)우러러보도록(방언)恭敬호아을워느니(금삼3:4) 모도다(集刀花乎白良모도호술바)모도와(방언)모도화(제주)모도고여디아니호면(금삼5:33) 기리다(慕)기릴,기리는(방언)내님금그리샤(용가50) 잇다(有如)가온더있느니(금삼2:23)기티다(遺也기타)찌 ㅈ차(방언)恩德기트매(두시초4:46)두다(置遺두고)두고서두어서(방언)알꾼經家사두니오(법화4:6) 이르다(成遭賜去이르겨시가)이루실까(방언)이루게시오(전라) 상을이르스바니(월석21:188) (願往生歌)
- ⑨ 모시다(倍地羅良되셔라)모시라(방언)니물되셔너곤(동동) 브리다(使以惡只브리악)부래서, 부러서(방언)하늘히브리시니(용가19) 고드다(直等隱고든)곧은(방언)고든氣運이乾坤애빛갯더라(두해8:6) 브리다(唱良블라)블라(방언)호늘을우러러 크게브르고(仰天大呼)(오륜2:45) 볍다(巴寶白乎隱볶솔본)볶논(방언)호나호볶노는거셔(초박통사상42) (兜率歌)
- ⑩ 가다(去內如가나다/去內尼叱古가느넛고)잔다(방언) 니르다(云遺니르건) 이르고선(방언)이르겨셔(전라)니르거나쓰거나(월석17:42) 이시다(有阿米이시매)시매,이시니(방언) 서호다(次勝伊遺서어호고)저어하다(방언) 서어호겨슬가지여(침신9-4:5) 이르다(早隱이른)이른, 일찍은(방언)罄響이르도다(두초15:38) 펄아디다(浮良落戶떠라덜)떨아질(방언)떠러질도(凋)(석천33) 나다(出古나고)나서는,나곤(방언)넙니피서르나고(월석 8:12) 모르다(毛冬乎丁모드론덩)모린동,몰론동(방언)구즌이룰모르코

(석상9-11) 맛다(逢乎)맞이하도록(방언)부테마조나아마즈샤(석상 6:12) 닷다(道修良)땀아(방언)福을닷가하늘해나엿다가(월석1:42) 기드리다(得是古如기드리고다)기드리쿠다(방언)時節을기드리는다호시고(석상6:11)//어느(於內)聖人神力을어는다술불리(용가87)//몰(毛如모다)몬,몰(방언)이러듯호모다아는(석상10:3) (祭亡妹歌)

⑪ 새다(東尸샬)동쪽,새쪽(방언)언제새어든부터를가보스보려뇨(석상6:19) 놀다(遊鳥隱노론)논(방언)道胎에노라(능엄8:24) 바라다(望良古브라고)바라보고(방언)머리돌아브라오니(두초7:10)오다(來叱如오다)왔다(방언)스르다(燒邪隱사른) 슈라(藪耶/有叱如잇다/有叱故잇고)있도다(방언)보다(見賜烏尸보시을)보심,보샬(방언) 듣다(聞古듣고)듣고(방언)드롤문(聞)(유합하1) 밧브다(八切爾바치)바삐(방언)밧브다(동문유해하52) 혀다(數於將來尸혀바돌)설,혈(방언)등잔불혀오라(박통사중8)슬다(掃尸쓸)실,시는알掃(유합하8) 살브다(白反술브)살은(방언)子孫之慶을神物이슬하니(용가22) 녀느(也人是)남(방언)녀느사르미供養차늘(월석1:13) 달애다(達阿羅달아라)달엘誘(훈회하28) 떠가다(浮去伊叱等邪떠가잇드라)떠갔더라(방언) 떠갈漂(유합하 54) 배다(北所音叱배슴)망침,망치는(방언)네나라홀배요리라(월석7:46) (彗星歌)

⑫ 아니달(不冬)앙이,아니,안(방언)그르다(爾屋支글오히)그릇,그릇되게(방언)그르디아니호니라(금삼4:16) 디다(墮米디매)지니,지매(방언)南녀벼리故園으로더가놉다(두초21:23) 너(汝於多支)너,니(방언) 너다(行齊너져/行乎널)가자,니져(방언) 하이다(敎因隱히신)하읍신 가다(改衣賜乎가새시은)가시신(방언)어리다(影支古얼히고)어리고,빈치고(방언)어뢰다(동문상59) 어히다(矣以支如支이히드히)어이듯이(방언)어히다(刺)(한청문갑386b)다라나다(之叱逸鳥隱第也죽드론데야)깃달린지(방언)다드라나(관음8)(怨歌)

⑬ 모자라다(毛達只모자락)모지래개(방언)찾물이모즈롤씩(월석8:32)지너오다(將來吞隱디너오단)징겨오단(방언)네가깃律義롤디너오디(능엄7:11) 멀다(遠)먼(방언)더욱먼사르미(법화2:41) 디나다(過出知遣디나디고)지나쳐선(방언)후에현劫디나(능엄1:17)가고있다(去遣省如가겨싱다) 외

다(非乎隱焉외온)을흐니외니이시면(능엄2:59) 십다(次弗시불)치불.치분(방언)치버브리어렛다가(월석9:23) 잇다(有史內於都잇어도)있어도(방언) 도라오다(還於尸朗也돌올랑 야)돌릴롱아,돌리겟다(방언)마리롤돌와(두중16:56) 도흐다(好尸도홀)좋은,좋을(방언)우수미도커늘(금삼3:16) ㄹ로다 (曰沙가름)카는것,말함(방언)表의ㄹ로다(월석2:69) 설다(溱陵隱선)설은,선(방언)설며매고몰(영가상18) 이이다(也內乎呑尼이아나온다니)이아치느냐(방언)들고지를이아면(박통사초상57) //오직(唯只)오직世人이제性보다몬호몰(금강경서5) 아직(尙宅아직)저른저그란안죽ㅁ슴ㅁ장노다가(석상6:11)다만(但다만(방언)다뎡사름으로(번역소학8:5) (遇賊歌)

- ⑭ 가다(去隱-간)간(방언)洛水예山行가이셔(용가125) 가리다(皆理米-ㄹ리매)가리니,가리매(방언)順호더ㄹ름없스니(목우자36) 모달(毛冬)몯,몬(방언)편안히몯자셔(두시중3:9) 앓다(居叱沙-앗사)앓아서(방언)방의가안꺼나셔거나(석상19:5) 울다(哭屋尸以-우를)울음(방언)슬프거든우니(금삼4:45) 낫호다(乃叱好支賜烏隱-나토히시온)나타내신(방언)貪慾올나토히아니홀씨오(월석10:25) 엇디(惡知)어째,우째(방언)서르볼주를엇디알리오(두시초15:47) 짓다(作乎下是-짓와리)지오리(방언)계우슨바비나지셔(상저가) 기리다(慕理尸-그릴)기릴(방언)常性을기려(능엄6:69) 녀다(行乎尸녀을) 갈,가는(방언)머리그中에녀거든(법화3:155) 자다(宿尸-잘)잘,자는(방언)잘슈(睡)(자회상30) 이시다(有叱下是-이사리)이시리(방언)三年이몬차이셔世間버리시고(석상6:4) (慕竹旨郎歌)

## 2. 문법형태류의 분포

언어체계의 발달은 음운체계와 함께 문법체계의 틀 위에서 이루어진다. 비교적 적은 분포이기는 하지만 향가에 쓰인 문법형태들을 함께 모아 보기로 한다.<sup>12)</sup>

12) 신석환(1986)의 <향가 문법형태소에 대한 분석적 연구>에서 선어말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의 비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있다.

## 1) 문법형태류

## (1) 조사류

-야(郎也)(모죽지랑가) -이(民是)-이(방언)海東六龍이느르샤(용1)(안민가)-아(애)(月良-돌아)-애(방언)(처용가) -하(月下)-아(방언)둘하노피곰(정읍 사)(원왕생가) -아(多하-)(풍요)-아(花良고사)(도솔가)

## (2) 어미류

-디(爲賜尸知흐실디)홀디(제주도) -덩(去於丁)가는동(방언) -다히(多支)다이(방언)실다히아디몬홀새(능엄4:13) -든(爲內尸等焉흐놀든)할것이면(방언)홀던(안민가) -이다마는(是如馬於隱)이다마는(방언) -하리고(爲理古)할꼬(방언)(처용가) -라(修叱如良닷그라)(풍요) -니(고든, 볍술븐)(도솔가) -도(辭叱都)-애(彌陀刹良)(제망매가) -애(心米마사매) -도(有史內於朗잇어도)(우적가)

## Ⅲ. 명칭어와 문장류의 갈래

이름 가운데 가장 보수적으로 바뀌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땅이름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 어휘 자료 중에 삼국의 지명을 『삼국사기』의 지리지와 고리지어 살펴 보면 지금도 쓰이고 있는 옛 지명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써다. 아울러 『삼국유사』에 드러나는 벼슬이름과 사람이름을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당시의 언어자료를 찾아 낼 수 있다. 그럼 그 많은 기록 가운데 어느 것이 제 1차 자료로서 원용할 수 있는 자료이고 어느 것이 제 2차 자료인가를 변별하는 일은 그리 쉽게 속단할 수가 없다. 모두가 한자를 빌어다가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언어차용의 발달단계로 보아 음성언어가 앞선다. 마침내 한자차용에 있어 우리말에 가까운 한자의 소리를 빈 음차가 우선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자의 뜻을 중심한 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말 자료가 있을 때, 이를 더욱 미덥게 해 주는 보기들은 ① -일작(一作), 일운(一云), 혹은(或云), 운(云) 왈(曰), 우(又) ② - 본(本) ③ - 의(疑)-당작(當作) ④ - 향명(鄉名) ⑤ -방언(方言)과 같은 형식으로 하여 각주

더러는 관주와 같은 형식을 받고 있다. 이는 마치 『삼국사기』의 전래지명과 개칭지명을 (傳來地名 曰 改稱地名)의 모양으로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모든 자료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향가의 경우에서처럼 같은 어휘를 음차나 훈차로 함께 표기하였거나 중세어나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확실하게 제1-2차 자료로 보이는 것들만을 가리는 작업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삼국시대의 언어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유사(遺事)의 찬술자인 일연의 주체적인 언어의식은 그의 민족사관에서 비롯한다(記新羅事具存方言亦宜矣). 그렇다고 하여 국수주의만을 고집하였던 것만은 결코 아니다. 밖의 것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자는 입장이다. ④-⑤같은 기록의 보기들이 만든 예는 아니라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실증할 보기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명칭어류 기술의 표현

① 勿吉一作靺鞨/伊山一作皆比山/漸梁梁讀云道或作涿亦音道/祗沱一作只他(長曰祗沱)/居瑟那或作居西干/徐羅伐又徐伐或云沙羅又斯盧/尼叱今或作尼師今(-齒叱今(〈삼사1〉)朴弩禮尼叱今一作儒禮王/脫解一作吐解/始林一作鳩林(飛禽之總名새도鳥〈훈몽자회〉)未鄒一作味炤又未祖又未召/美海一作美吐喜(未斯欣(삼사))毗處王一作炤智王(炤知(삼사))/智證麻立干一作智哲路名又智度路王/眞興王名多麥宗一作深/炭峴一云沈峴/伎伐浦一作只伐浦/(권1기이)

② 毛火郡蚊化臨關郡/居列一云居陀(居昌)所夫里一作泗泚/居拔城又固麻城/任存城一云今州 ( )大興禮山/首露或云首陵/居叱彌一云今勿/坐知王一云金叱義熙/麻品一云馬品/吹希王一云叱喜/銓知一云金銓/鉗知一云金鉗(권2기이)//魚山佛影當作摩耶斯此云魚也(권3답상)

③ 阿道一云我道又阿頭/毛禮或作毛祿(권3홍법)//穴口郡一云甲比古次(강화(삼사35))/弩盼夫得一作等/翼峴一云伊文(양양)(삼사35))羽谷一云

玉堂/南月山亦名甘山寺/支山一云陽谷-連谷(강릉<삼사35>)/居柒山一作葺山國(東萊<삼사35>)(권3답상)/// 嘉瑟岬或作加西又嘉栖(권4)///平壤城本王儉城(삼사35)

④ 次次雄或作慈充金大問云次次雄方言謂巫也/閔智卽鄉言小兒之稱/鄉稱王爲麻立干/俗謂端午爲車衣/鵠島鄉云骨大島(권2)

⑤ 馱羈或作異次或云伊處方言之別也云馱也羈頓道覩獨等皆隨書之便乃助辭也(권3홍법)加西又嘉栖皆方言也/元曉亦是方言也當時人皆以鄉言稱始旦也師生小名誓幢第名新幢幢者俗云毛也(권4의해)///未尸與彌勒說者曰未與彌聲相近尸與力形相託其近似而相繼也(권3답상)

⑥ 天竺人呼海東云矩矩口毛(雞)髻說羅(貴)(권4 의해)<sup>13)</sup>

## 2. 명칭류 언어 자료와 고대국어

경덕왕 16년(757)에 이루어진 명칭류의 언어 자료와 함께 『삼국유사』의 명칭류 자료는 앞절의 자료 개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고대국어의 언어를 가늠하는 중요한 광원이 된다.

『삼국유사』의 찬술 과정에 드러나는 일연선사의 의향은 다분히 신라의 방언으로 신라의 일을 기록함이 옳다고 보는 관점이다(今記新羅事具存方言亦宜矣). 말 그대로 민족사관에 의한 결과라고 상정할 수 있다. 같은 명칭류의 자료라 하더라도 신라의 방언을 중심으로 적었다고 보여지는 것을 제 1차적인 자료로 취하기로 한다. 이 때 『삼국사기』에 드러나는 동일 지명이나 인명들에 대한 기록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하기로 한다.

이제 그 줄거리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3) 범어로서 한국어에 대한 음운 인식을 알아야만 바르게 해독을 할 수가 있다. 산스크리트와 몽고어 같은 언어간의 비교언어학적인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삼국유사의 명칭류 자료의 분포

(1) 지명류

- ① 骨火-臨川縣伐得骨火小國(삼사34)/黃山郡本百濟黃等也山郡景德王改名連山(삼사36)/西林郡本百濟舌林郡(삼사36)/于山島-鬱陵(武陵. 羽陵)/優渤水-上坪池(天池)/熊神山-白頭山(삼유권1)/溟州本河西良(一作河瑟羅)今新羅北界(삼사35)/春州本貊國一云烏斤乃一云烏近乃(삼사35)/咸安郡本新羅阿尸良(一云阿那伽儂)(삼사34)/咸昌本古寧伽儂國始祖伊珍阿鼓王(삼사34)/星州本新羅本彼縣後改碧珍郡(삼사34)/固城本小伽儂國-古自郡(삼사34)/熊州本百濟舊都唐高宗遺蘇定方平之置熊津都督府(삼사36)/漢陽郡本高句麗北漢山郡(一云平壤)景德王改名今楊州(삼사35)//迦葉原. 撥川. 鴨綠江. 熊神山. 優渤水(上坪池). 闕川. 突山. 楊山. 嘴山. 花山. 金山. 明活山. 茂山. 阿珍浦. 吐舍山. 遙乃井. 䟽川丘. 月城. 始林. 闕智. 栗浦. 屈歇驛. 于陵島(武陵) 女根谷. 弓知巖. 娘山. 皮田. 金剛山. 柰林. 穴禮. 炭峴. 泗泚水. 德勿島. 古馬彌知. 星浮山(삼유권1)//西海若. 靈鷲山. 金剛嶺. 鷓島. 高鬱府. 皆骨山. 居拔城. 近品城. 星山陣. 燕山郡. 龍華山. 一善. 一利川. 天安府. 龜旨. 黃山江. 地理山. 望山島. 別浦津. 主浦村(渡頭村)旗出邊. 臨海縣. 金海府(삼유권2)
- ② 原州本高句麗平原京國原城今原州(삼사35)/武州本百濟地神文王六年爲武珍州今因之(삼사36)/密城郡本推火郡景德王改名今因之(삼사34)/臨關郡本毛火郡(一作蚊化(-伐)(삼시34)/熊川本新羅熊只縣-熊神縣(삼사34)/加恩縣本新羅加害縣(삼사34)/聞慶郡本新羅冠文縣(一云冠縣一云高思曷伊城)(삼사34)/全州本百濟完山(一云比斯伐. 一云比自化(-伐)(삼사36)鐵原本高句麗鐵園一云毛乙冬非郡(삼사35)清州本百濟上黨縣一云娘臂城一云娘子谷(삼사36)洪城本高句麗運州(삼사35)河曲縣絲浦今谷浦(삼사34)義安郡本屈自郡(仇史郡)(삼사34)八谿縣本草八兮縣(삼사34)捺李郡(捺生郡: 寧越)//古伊峴. 長嶺山. 河率高位山. 高大山. 望德遙山. 三花嶺. 竹嶺. 連谷縣. 翼嶺縣. 馬等烏村. 河陽館. 淸海鎮. 金蘭. 開雲浦. 鴨綠. 松京. 江華. 北溟(元山) 無等谷. 孝家院. 公山. 毘瑟山. 萬魚山(삼유권3)
- ③ 嘉瑟岬或加西嘉西 俗言으로 古尸(삼유권4)東平郡本新羅大甑縣(삼사34)安康本新羅比火(삼사34)鹹陽縣本新羅居火縣(삼사34)迎日縣本新羅斤烏

支(삼사34)下柯山鶴巖寺(鶴駕山)(삼유권4)萬頃縣本百濟豆乃山縣(삼사36)高城本高句麗達忽(삼사35)開寧郡古甘文小國也(삼사34)尙州本沙弗國(삼사34)誓幢(新幢)蚊川橋.發智村(佛地村)押梁郡.栗谷.三岐山.阿尼帖(嘉西峴)大鶴岬.小鶴岬.所寶岬.大門岬.金井山(삼유권4)

- ④ 機張本新羅甲火良谷(삼사34)歙良州本新羅阿屈火村(삼사34)高敞本百濟毛乙夫里縣(삼사36)禮山本百濟烏山縣(삼사36)包山-琵琶山/所瑟山鬩包(두시1)(삼유권5)壽昌郡本喟火一云上村昌郡(삼사34)大丘縣本達句火縣(삼사34)泗川郡本新羅史勿火縣(삼사34)機張山.西蔦山.達拏山(高山).禮山.大峴嶺.捺音.一伐.葛火(屈弗:울주).布川山.避里村.吐舍山.醉山.完乎坪.枝良坪.南山.孝養里.漢岐里(삼유권5)

### (2) 인명류

- ① 古比女(삼유권2)毛禮(삼유권3)異次頓-胃犬髑 = 狷髑(삼유권3)阿非知(삼유권3)古巴里.古老里.阿好里(삼유권3)負箕和尚-夫蓋寺(夫蓋-신라방언)(삼유권4)元曉-始旦.談捺乃末.仍皮公(삼유권4)檀君王儉.桓因.桓雄.雄女.桃花女鼻荊郎(삼유권1)居陀知.西海若(삼유권2)能哀.能蓋(삼유권2)阿度(삼유권3)郁面 貴珍. 廣德 嚴莊 阿之女(삼유권5)彌勒仙花-未尸郎/强古乃末(삼유권3)弓巴.處容.耆婆郎.水路夫人(삼유권2)

### (3) 왕칭류

- ① 居西干 : 朴赫居世//次次雄(慈充-스승): 南解// 尼叱今(尼師今): 弩禮. 脫解. 婆娑. 祇味(祇磨). 逸聖. 阿達羅. 伐休. 奈解. 助賁. 理解(召解). 未鄒(未昭. 未祖. 未召). 儒禮. 基臨. 乞解 // 麻立干: 奈句. 實聖. 訥祇. 慈悲. 毗處. 智訂.(智哲老. 智度路)//王: 法興. 眞興. 眞智. 眞平. 善德(德曼). 眞德. 太宗武烈. 文武. 神文. 孝昭. 聖德. 孝成. 景德. 惠恭. 宣德. 元聖. 昭成. 哀壯. 憲德. 興德. 僖康. 閔哀. 神虎. 文聖. 憲安. 景文. 憲康. 定康. 眞聖. 孝恭. 神德. 景明. 景哀. 敬順(삼유권1-신라)
- ② 王: 東明(高朱蒙或鄒蒙)瑠璃. 大虎神(味留)閔中. 慕本. 國祖. 次大. 新大. 故國川. 山上. 東川. 中川. 西川. 烽上. 美川. 國原. 小獸林. 國壤. 廣開土. 長壽. 文咨明. 安藏. 安原. 陽原. 平原. 嬰陽. 榮留. 寶藏.(삼유권1-고구려)
- ③ 王: 溫祚. 多婁. 己婁. 蓋婁. 肖古. 仇首. 沙泮. 古爾. 賁稽. 汾西. 比流. 契. 近肖古.

近仇首.枕流.辰斯.阿莘.腴支.久爾辛.毗有.蓋鹵.文周.三斤.東城.虎寧.聖.  
威德.惠.法.武.義慈(삼국유사권1-백제)

- ④ 王: 首露.居登.麻品.居叱彌.伊品.坐知.吹希.銓知.鉗知.仇衡(삼국유사권1-가락)

(4) 국명류

古朝鮮.夫餘.渤海.馬韓.辰韓.弁韓.貊國.濊國.毛羅.辰旦.新羅.高句麗.百濟.  
駕洛(伽倻).鷄林國.菟山國.孤竹國.骨浦國.古自國.史勿國.甘文國.沙弗國.  
駕洛國.

(5) 기 타

- ① 金山加利村-祗沓(只他길다)기다)지다)/我刀干.彼刀干.汝刀干.五刀干.留  
水干.留天干.神天干.五天干.神鬼干(삼유권2)/津梁(삼유권4)/波珍滄.月  
水帛(삼유권3)/文豆婁.分叱水爾叱(삼유권2)
- ② 矩矩吒磐說羅(삼유권4)智理多都波都波(삼유권2)呵囉婆佐曩/達口隸哆法  
嘍/曩伽口四伽曩/達口隸盧舍那(삼유권3)

3. 문장의 갈래

문장류의 자료는 오로지 삼국유사의 향가가 있을 따름이다. 아직 향가  
의 풀이가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서재극(1979)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  
여 문장의 갈래들을 살펴 보도록 하며 우선 범주화만 하고 다음에 각 범  
주에 따른 문장의 갈래를 살펴 보고 통사유형의 실제와 질서를 부여하거  
로 한다.

1) 삼국유사의 문장류 자료의 갈래

(1) 문장의 갈래

- ① 단문 : 흥든사그시고지느오쓰라(천수관음가)/넌고든미스미命부리악彌勒  
座主뫼서라(산화가)/눈돌을츠시의맛보히엇디깃와리(모죽지랑가)/갓사갓  
늪피호(찬기파랑가)/서리모들느올花判이야(찬기파랑가)/두루먼나라(천  
수관음가)/무루풀고조며두블손바담모히느아천수관음전아히비히슬블두느

오다(천수관음가)/ 설븐하라(풍요) 공덕닷그라오다(풍요)/달하이적西方  
 솟덩가시리겨(원왕생가)/무량수불전에뇌우줄 오람함즈키솟겨시너(원왕  
 생가)달아라떠가잇드라(혜성가)이잠개사글은도홀ㄹ름샤이아는온드니(우  
 적가)

② 중문 : 善化公主니른놈그속어라두고마통바을알안겨가다(송요)/두블혼나  
 하엿고두블른누히하연고(처용가)/즈른손스즈른눈홀ㅎ든햇브리ㅎ든홀싸  
 히(천수관음가)

③ 복합문 : 간봄ㄹ리매모들앗사우롤이시름(모죽지랑가)/아드롭나토히시은  
 죽年數나삼혈히히니저(모죽지랑가)그릴므스매니너를길다붓술형이잘밤이  
 시리(모죽지랑가)/질피바호겨티거문손암쇼노히시전나홀아닐붓호리시든  
 고출것가밤즈보림다(헌화가)/구릿대홀내히슴물생이홀좌히다술아라(안민  
 가)/이싸홀브리격아드리가는덩홀디나라히디니디고다(안민가)/君ᄒᄡ다  
 히民ᄒᄡ홀든나라太平ᄒᄡ(안민가)/목메치매나불간드리힌구름뿌추떠가  
 수만피하(찬기파랑가)일오작별하회郎이야디니히다시온므스믹ᄒᄡ홀쫓는아  
 져(찬기파랑가)/동경볼피드라밤드리노니다가드러사자리보곤가외너히아  
 라(처용가)/아리나하이다마는아사를엇다히리고(처용가)/나아기치히실든  
 브리드리쓰을慈悲야심고(천수관음가)다담기프신尊의희월일히두블손모도  
 호술바願往生願往生그릴사름잇다솟겨시서(원왕생가)/오늘이이散花블라  
 브보솔본고자(산화가)죽사리길혼이이이사매멈호리전난가는다말쑈모다니  
 르전가는넋고(제망매가) 어는ㄹ술이른브르미이이더이떠라덜넋ᄒᄡᄒ든  
 자나고가는곧모드론덩(제망매가)/彌陀刹야마조나도닷가기드리고다(제망  
 매가)/네누리쌀물길달바인러논갓하브라고 여럿軍두옳다烽스란모히야슈  
 라(혜성가)/三花이오롭보시올듣고돌두바치허바돌바의길꺾버리브라고혜  
 성이야솔븐너니잇다(혜성가)/이야변물배슴빛즈락잇고(혜성가)몹도히갓  
 ㄹ술안들글오히디매너다히너재히신울월돈느치가스시온드러야(원가)/드  
 리얼히고다스론모싯넝물쌈사히히드히죽사브라나누리도죽드론데야(원가)  
 /저 이므스매죽모즈락디너오든날떨새들디나티견여든드미가겨싱디(우적  
 가)/다만외은破主잇는오도돌올랑야(우적가)/오직이노밋恨은서른안히안  
 죽모도니다(우적가)

④ 독립문 : 오다오다오다오다(풍요)/혜성이야(혜성가)아으(원왕생가/혜성가/안민가)郎이야 (모죽지랑가)

(2)글감의 갈래 분석:

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글감분석은 다음과 같은 갈래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에 하기로 한다. 우선 그 갈래를 들어보이면 아래와 같다.

- ① 조응관계
- ② 호응과 접속
- ③ 스키마 분석

#### IV. 맺 는 말

삼국시대 언어자료로서 『삼국사기』의 지리지 부분이야말로 유력한 광맥임에 틀림이 없다. 이와 함께 『삼국유사』는 명칭류의 언어자료뿐만 아니라 어휘는 물론이고 문법자료까지 갖추고 있는 더욱 중요한 고대언어의 보고이다.

항가나 사기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국어의 연구는 자구 해석이나 주석학적인 성격이 주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본 논의에서는 어휘자료는 물론이고 형태를 비정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통사론적이 눈높이를 겨냥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가능성은 본격적으로 후속의 논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삼국유사』를 표기하는 언어의 기층은 경산지역어이다. 언어의 문화기호론적인 관점에서 보아 찬술자인 일연의 고향이었고 유사 찬술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유사소전의 자료를 풀이하고 통사론적인 접근을 함에 있어 경산지역의 방언을 터삼아 회고법적인 재구성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들 항가 자료와 명칭류 어휘의 열개들은 고대국어 본유의 언어적인 질서를 가늠할 수 있는 터발을 제공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글감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문장과 글감의 갈래 구분을 유형론적으로 접근하여 언어적인 실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삼국시대 언어의 음운과 문법, 통사론적인 체계를 터놓는 기초작업을 이룸으로써 삼국유사의 국어학적인 자리매김은 더욱 굳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글감의 갈래 분석과 실체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 둔다.

## 참 고 문 헌

- 이상호 옮김, 삼국유사  
 최남선, 삼국유사  
 岩波書店, 日本書記(上)(下)  
 강길운,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연구, 새문사, 1990.  
 권상로, 한국지명연혁고, 동국문화사, 1961.  
 김동소, 국어변천사, 형설출판사, 1996.  
 김완진, 향가해독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김종택,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1992.  
 김종훈, 국어어휘론연구, 한글터, 1994.  
 류 열,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1983.  
 서재극,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79.  
 신석환(1986), 향가 문법형태소의 분석적 연구, 계명대학교(박논)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72.  
 유창균,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1994.  
 이기문, 국어사개설, 태학사, 1998.  
 이병선,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이종철, 향가와 만엽집가의 표기법 연구, 집문당, 1983  
 정열모, 향가연구, 사회과학원, 1965.  
 천소영, 고대국어의 어휘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0.  
 최남희, 고려향가의 차자표기법 연구, 건국대학교(박논), 1986,  
 하정룡·이근직, 삼국유사교감연구, 신서원, 1997.